

내우외환 뚝심으로 돌파 '대권주자' 부상

취임 1년 맞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2번의 재보궐선거 승리 이끌어 전국구 정치인으로 '2기 체제' 친박과 동거 ... 수평적 당·청 관계 과제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는 것이 당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서 집권 여당 지휘봉을 잡은 김 대표는 7·30 재보선, 4·29 재보선, 공무원연금 개혁, '성완총 리스트' 및 이완구 전 총리 교체 파문, 메르스 사태,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 등 굵직한 현안을 쉴 새 없이 돌파하며 파란만장한 1년을 보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김 대표는 '공통 정당'을 대과 없이 이끌어 내실을 다졌고, 현재는 여권 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하나로 거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 대표의 '뚝심'이 빛난 장면은 새누리당이 크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치른 두 번의 재·보궐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끈 것이다.

지난해 7·30 재·보선은 대내적으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계파갈등 여파와 당·청 갈등 우려, 대외적으로는 세월호 사태의 여파 속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15개 선거구 중 11개 지역에서 승리하는 압승을 거뒀다.

특히 여권 불모지인 호남(순천·곡성)에서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당선된(이정현 의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압박 속에 '뚝심'의 한 축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수평적 당·청 관계 구현'이 퇴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은 김 대표에게 남은 정치적 부담이자 숙제이다.

앞으로 김 대표의 앞에 놓인 가장 큰 시험대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총선이



개정한 '위헌 논란'으로 사퇴한 유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합의 추대'할 예정이다.

새 원내대표에는 유 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의 합의 추대가 사실상 확정됐다. 원 전 정책위의장은 12일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PK(부산·경남) 비박계 3선의 김정훈 의원을 낙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총선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부산지역 의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질 신임 사무총장에는 친박계 3선의 황진하(경기 파주을) 의원이 유력한 상태다. 김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 사무총장'을 임명하겠다는 콘셉트를 정해놓은 상황에서 당 내분을 추스르는 것 역시 급선무로 꼽히는 만큼 친박계로 분류되긴 하지만 계파색이 옅은 황 의원이 적임자로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실무를 보좌하는 제1사무부총장에는 비박계 재선의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제2사무부총장은 김 대표가 '친박계 좌장'인 서정원 최고위원과 상의해 수도권 출신 원의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김대표는 14일을 전후로 '2기 체제'를 본격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의회총회를 열어 국회법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12일 오전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국회 내 원내행정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靑 정무수석에 '친박' 현기환

조윤선 사퇴 54일만에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임 정무수석 비서관에 친박(친박근혜)계인 현기환(56)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지난 5월18일 당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54일 만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이정현, 박준우, 조 전 수석에 이은 4번째 정무수석이다.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거쳐 17대 대선 중앙선대위 부산시당 홍보지원단장을 지냈다. 이어 18대 총선 부산사하구갑 선거구에서 당선, 친박계 핵심의원으로서 활동했다.



현 수석은 19대 총선에 앞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친박계 대표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다. 하지만 2012년 8월 4·11 총선 과정에서 3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을 떠났고, 무혐의가 확정되자 2013년 4월 재입당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현 수석은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공천헌금 사건으로 제명까지 됐던 인물"이라며 "자리에 합당하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jkipark@

관련 정보를 집약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을 휴가는 대한민국으로'라는 행사 캐치프레이즈처럼 휴가를 앞둔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줬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가 또 다른 관심을 끈 것은 처음으로 지역 대표 언론사와 중앙 언론이 국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았다는 점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TV조선은 메르스 사태로 얼어붙은 국내 경제를 살려보자는 기획 의도아래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경쟁보다는 협력과 상생의 장을 만들었다.

한국지방신문협회=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전남 '가고 싶은 섬' 관광객 80% 늘어

가우도 등 을 선정 6개 섬

섬마다 특색 사업 발굴

2015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개 섬의 섬에 관광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12일 "지난 2월 대상지 선정 이후 6월 말까지 6개 섬에 19만여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늘었다"고 밝혔다. 섬별 방문객은 울 1~6월 까지 강진 가우도가 13만9606명으로 107%(7만2296명) 증가세를 보였으며, 고흥 연흥도 1658명으로 61%(630명), 완도 소안도 2만4853명으로 26%(5072명) 등이 각각 늘었다. 여수 낭도는 8054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7014명)에 비해 15%가, 신안 반월박지도는 9847명으로 5%(457명)가 더 찾았다.

주변 관광지에도 방문객이 늘어 강진 청자박물관의 경우 울 1~5월 7500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2500명)보다 200% 늘어났으며, 개인요 청자판매 실

적 또한 4~5월 11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0여만원)보다 60% 이상 늘었다.

반월·박지도는 광주 산악회원들의 대덕산 등반과 젊은 청년들의 자전거 투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TF팀을 꾸려 섬별 주제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섬별 특색 있는 사업을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섬 주민대학' 같은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운영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다소 주춤했지만, 7월부터 다시 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섬별 등산로 정비와 자생하는 꽃길 조성, 섬마을 환경 정비를 꾸준히 실시해 관광객이 찾고 싶은 섬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새정치-문화기관 대표 지역현안 예산확보 정책 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13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문화기관 대표들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 관련 주요 현안사업의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오는 9월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광주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문화인재 양성 등에 대한 심

도 깊은 논의도 가질 예정이다.

12일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 박해자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시당의 실질화 정책실장,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 등 광주지역 8개 문화기관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코미디 뺨치는 광산구의회

구정 질의 수준 이하

지역민들, 자질론 거론

"나도 발언 좀 합니다", "뚝같은 말 그만 하시오, 외울 정도가 됐네요", "무슨 소리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10일 열린 광주 광산구 209회 임시회 구정질에는 그야말로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 못한 의사진행 수준을 보여줘 지역민들로부터 '부끄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 상대방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 일쑤였다.

특정 의원의 단체장을 겨냥한 '한풀이' 형태의 집중 질의를 비롯한 의원

들 사이에 말꼬리를 잡는 형태의 발언은 더욱 가관이었다.

8명의 의원이 구정 질문을 쏟아냈으나 이 과정에서 수준 이하의 논란이 빚어지면서 정회와 속회를 반복하기도 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 회의는 의장이 전혀 통제를 못 할 정도로 제멋대로였다.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의원이 발언권을 독차지한 채 발언 시간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공무원들조차 "역대 광산구에 이런 수준 낮은 의회는 없었다"며 비아냥 거릴 정도였다. 이 같은 행태 때문에 기초의회 폐지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게 의회 인력의 이야기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명품 관광대전' 불거리 풍성 ... 2만여명 '북적'

을 휴가는 대한민국으로!

관광·내수살리기 교두보 역할 ... 성황리 폐막

전국 각지의 관광 명소와 불거리, 먹거리를 한자리에 모은 '2015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이 사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1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관광산업을 돕기 위해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 지방신문협회와 TV조선이 공동 주최한 '2015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은 국내 관광 명소 소개는 물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이벤트 등으로 그동안의 홍보 전시성 행사보다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간의 메르스 사태가 무색하게, 사흘 동안 2만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침체에 빠진 관광 및 내수 경제를 살리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

또 평소 한 곳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전국 각 지자체의 관광지와 특산물, 먹거리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해당 기관과 여행사·지자체들이 국내 관광

JT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오픈기념 100구좌 한정판매상품 마감임박!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 - 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벨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